

numbers 제 101호



주요 내용

2021.06.25

- 이번 주 주제 : [코로나 이후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생활 변화 1]
 -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 코로나 이후 어른보다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나**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더 강해!
 - 우리나라 국민, 희망 은퇴 연령은 65세!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 코로나 이후 어른보다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나!

작년 말 예장합동교단에서 실시한 목회자 조사에서 소속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 참석 비율(온라인 예배 포함)이 48%로 다소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장년보다 다음세대, 즉 주일학교가 코로나19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장년 개신교인 또는 목회자 대상 조사가 몇차례 있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었는데 반해, 다음세대 관련 공식적인 조사 통계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현재 교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 게임, 영상 등 여기물의 범람으로 인해 그들을 둘러싼 신앙적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데, 크리스천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와 맞물려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코로나19 이후 크리스천 청소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앙 활동 및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번주와 다음주 2회에 걸쳐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별 다음세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조사는 안산제일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2021년 4월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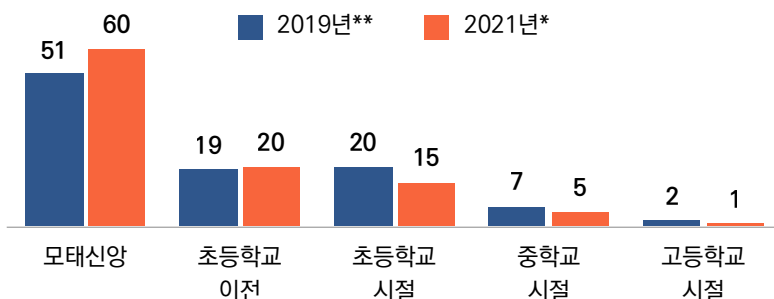
1



크리스천 청소년, 모태신앙 비율 60%

- 크리스천 청소년(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시점을 물은 결과, '모태신앙'이라고 답한 비율이 60%로 교회 출석 중고생 5명 중 3명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조사 결과 대비 모태신앙 비율은 51%에서 60%로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개신교의 가족종교화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교회 처음 나온 시기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9)

***크리스천 청소년 : 개신교인 중고생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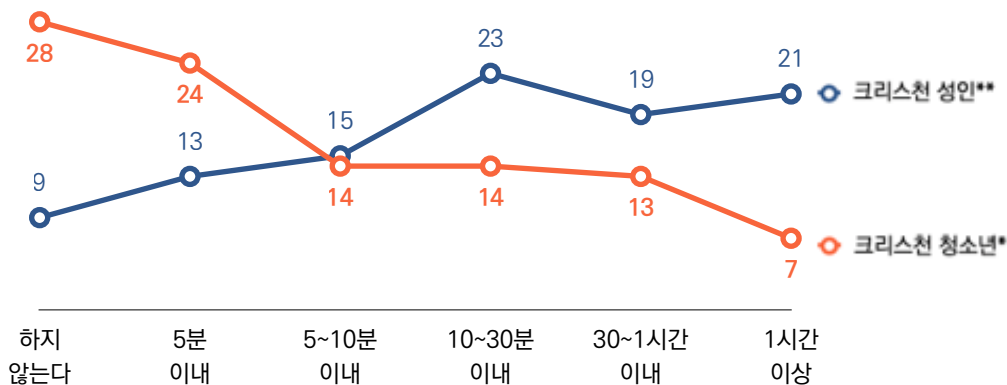
2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 절반 이상이 하지 않거나 5분 이내!

-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을 질문했는데, '하지 않는다' 28%, '5분 이내' 24%로 크리스천 청소년의 52% 즉 절반 이상이 거의 신앙생활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크리스천 성인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신앙생활에 훨씬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크리스천 청소년 vs 크리스천 성인, 교회 출석자 기준)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크리스천 성인 : 예정함동교단,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변화조사 결과', 2020.11.0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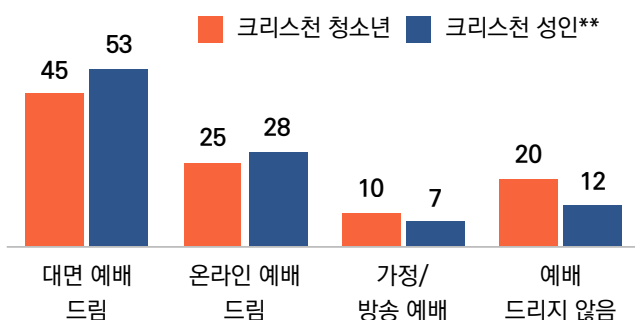
3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다' 20%

- 지난주 주일예배 드린 형태는 '대면 예배'가 45%로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예배 비율은 25%이며, 예배를 아예 안 드린 학생은 20%로 5명 중 1명가량이다.
- 크리스천 성인과 비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경우가 학생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

[그림] 지난주 주일 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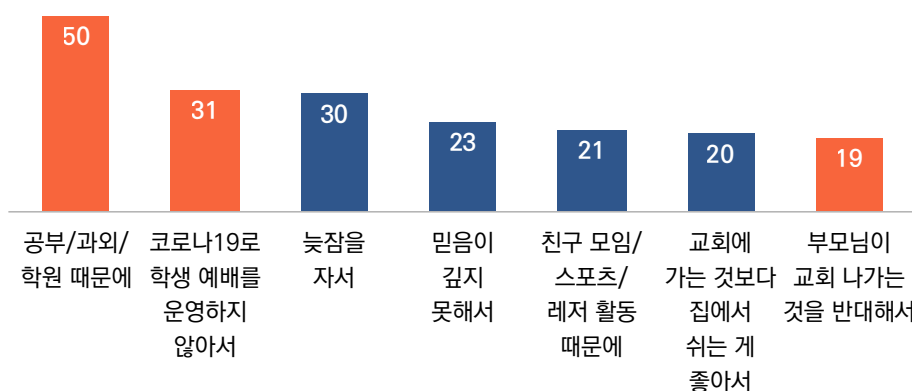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크리스천 성인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발표', 2020.01.18.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23)

● 지난주 예배 드리지 않은 이유, '부모님 반대' 5명 중 1명 꼴

- 지난주 주일 예배 안 드린 이유(중복응답)는 '학원/공부 요인'(50%)이 가장 컸고, '코로나로 인해 학생예배 운영하지 않은 요인'(31%)이 두 번째였다.
- 예배 드리지 않은 이유로 부모님 반대 비율이 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지난주 예배 드리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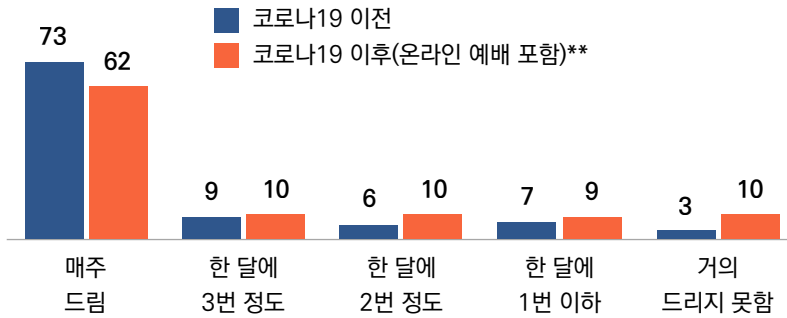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주일 예배 ‘매주 드린다’, 코로나 이전 71% → 코로나 이후 62%

- 코로나19 이전 매주 주일예배 드리는 비율이 73%였는데, 코로나19 이후(온라인 예배 포함)는 62%로 1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전후 주일 예배 드리는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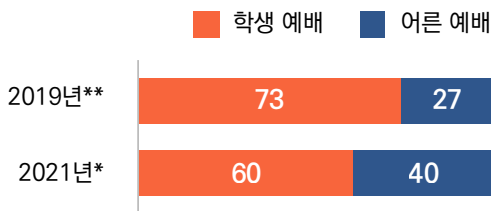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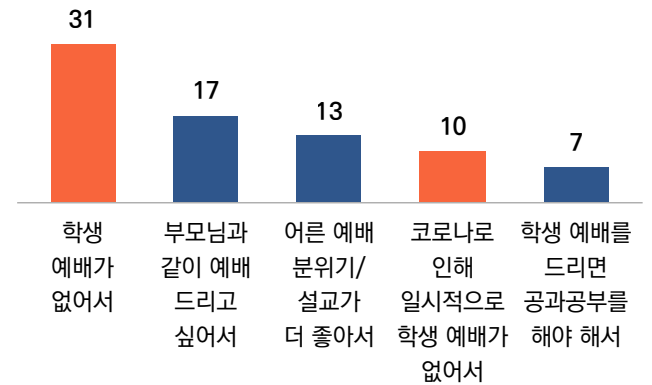
● 코로나 이후 학생 예배 대신 어른예배 드린 비율 대폭 증가!

- 지난주 주일예배 드린 학생에게 학생 예배와 어른 예배 중 어느 예배를 드렸는지 질문했는데, ‘학생 예배’ 60%, ‘어른 예배’ 40%로 5명 중 2명은 어른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2019년도와 비교하면 학생 예배 드린 비율이 73%에서 60%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 예배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그림] 지난주 드린 예배 (2019년 vs 2021년) (%)



[그림] 어른 예배 드린 이유(상위 5위)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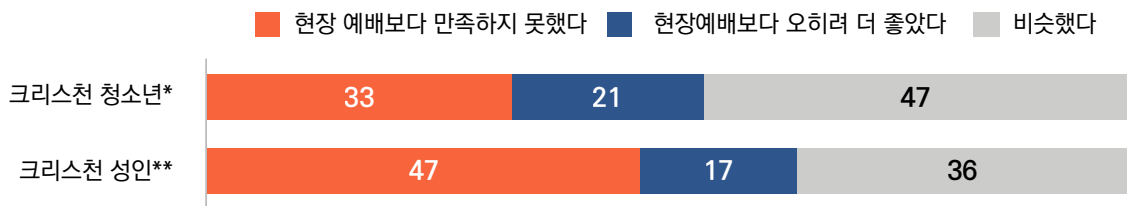


크리스천 청소년 온라인 대비 현장 예배 선호 33%에 그쳐

- 지난 주일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방송/가정예배로 드린 경우 현장 예배와 비교해서 어떤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33%,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21%, '비슷했다' 47%로 온라인보다 현장 예배를 더 선호하는 학생이 33%에 지나지 않았다.
- 이를 크리스천 성인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어른보다 온라인 환경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온라인/방송/가정 예배와 현장 예배 만족도 비교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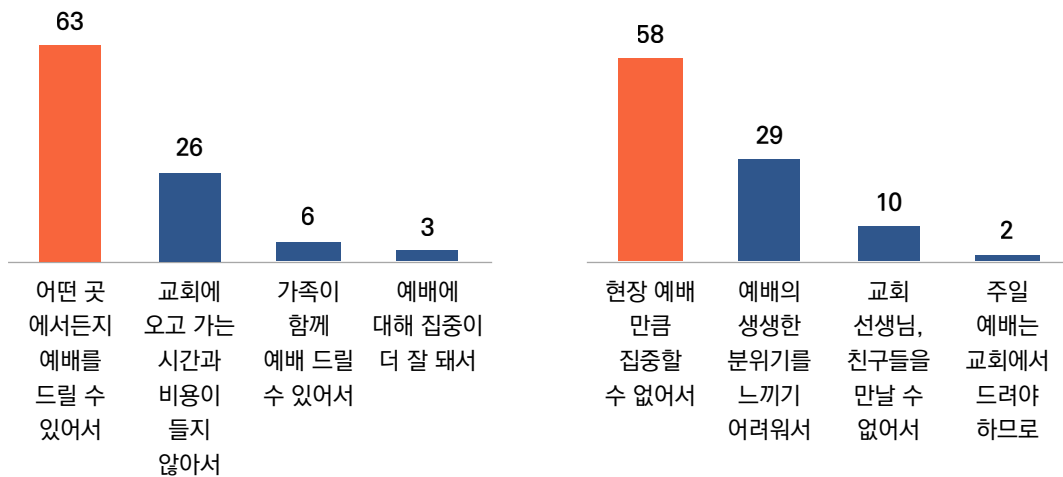
** 크리스천 성인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발표', 2020.01.18.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23)

● 온라인 예배 만족 이유는 '자유로움', 불만족 이유는 '집중 못함'

- 온라인 예배를 만족하는 이유는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움 요인이 가장 컸고, 불만족 이유는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높게 지적됐다.

[그림] 온라인 예배 만족 이유(온라인 예배 만족자) (%)

[그림] 온라인 예배 불만족 이유(온라인 예배 불만족자)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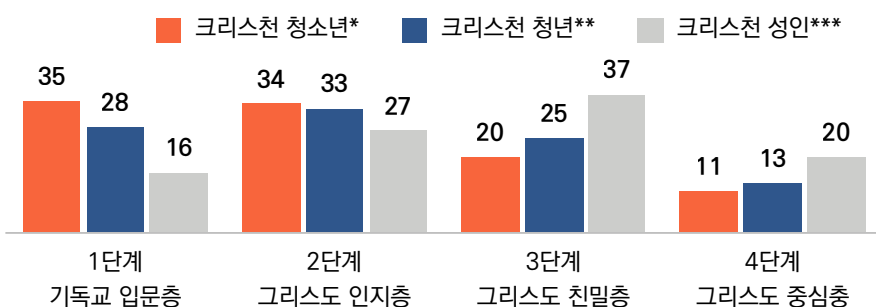
5



크리스천 청소년의 70% 가까이, 낮은 신앙 수준 상태에 있어!

-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 수준을 성인 크리스천과 비교해 보면,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비율의 경우 청소년 35%, 성인 16%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회 출석자 기준).
- 반면, 신앙이 가장 강한 4단계 그룹의 경우, '청소년' 11%, '성인' 20%로 이 역시 성인이 청소년보다 2배 가량 많다.
- 이러한 취약한 신앙은 청년 시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신앙 수준(크리스천 청소년 vs 크리스천 청년 vs 개신교 성인, 교회 출석자 기준)**** (%)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21.04.08-23)

** 크리스천 청년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시대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2021.01.27.(전국 만 19-39세 개신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30-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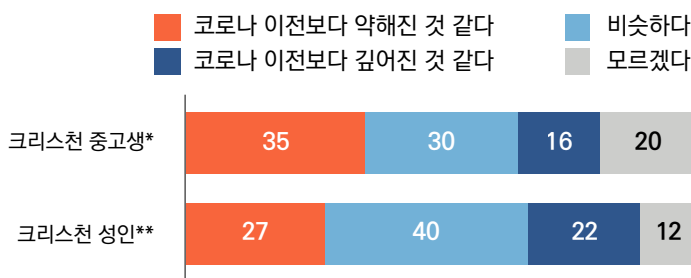
*** 크리스천 성인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11~12.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794명, 온라인 조사

**** 신앙수준 측정 방식 : 개신교인의 신앙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무브」(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시한 신앙수준 척도를 이용함

● 청소년의 신앙, 코로나 이후 어른보다 더 취약해져!

- 코로나19 이후 신앙의 질적 변화에 대해 질문했는데,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35%, '깊어진 것 같다' 16%로 '약해졌다'는 비율이 '깊어졌다'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 이를 크리스천 성인과 비교하면 학생이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더 높아, 코로나 환경에서 청소년의 신앙이 어른보다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환경 하에서 교회 출석하는 학생의 구원 확신 비율은 49%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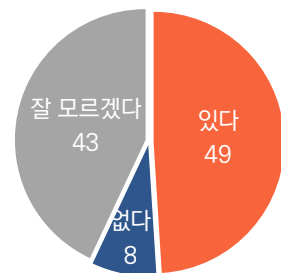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후 신앙의 질적 변화 (크리스천 청소년 vs 크리스천 성인) (%)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크리스천 성인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발표', 2020.01.18.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23)

[그림] 구원의 확신 여부(크리스천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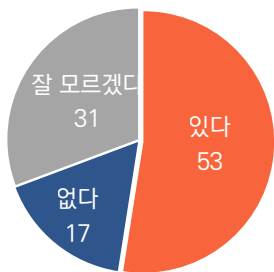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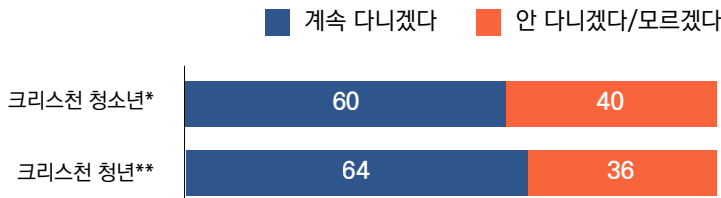
고등학생, 고교 졸업 후, '청년부 올라가 활동하겠다' 53%

- 크리스천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청년부에 올라가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53%만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48%는 '없다'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전체 학생들에게 어른이 된 후 교회 다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60% 정도만 계속 다닐 것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40%는 다니지 않겠다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크리스천 청년과 비교해 보면(청년들의 경우 10년 후 교회출석의향을 물었음), 계속 다니겠다는 의향률이 청년 64%, 청소년 60%로 청소년 층에서 더 낮았다.

[그림] 고교 졸업 후 청년부 활동 의향 (크리스천 고등학생 대상) (%)



[그림] 어른이 된 후 교회 계속 출석 의향 (크리스천 청소년 vs 청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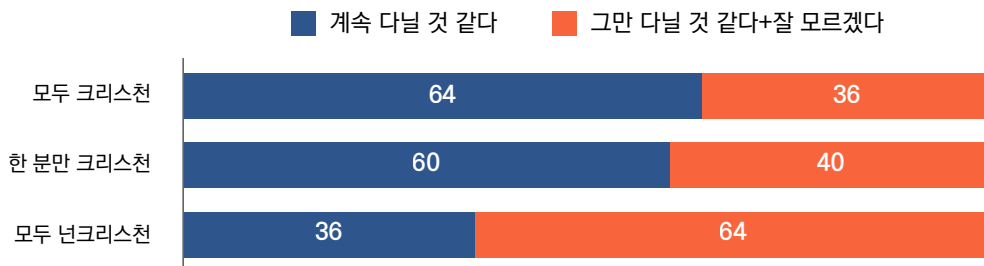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크리스천 청년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시대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2021.01.27.(전국 만 19-39세 개신교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30.12.30-2021.01.05.)

● 부모 모두 크리스천이 아닌 청소년, 어른이 된 후 계속 교회 출석 의향률 36%로 뚝 떨어져!

- 한편, 부모 모두 크리스천인 경우는 어른이 된 후 교회 계속 다닐 의향이 64%인데 반해, 부모 모두 년크리스천인 경우는 36%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모두 년크리스천 학생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어른이 된 후 교회 계속 다닐 의향(부모 종교별)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다음주 102호에는 크리스천 청소년의 교회 활동(특히 온라인 예배 행태)과 가정과 학교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



시사점

코로나19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 가운데 일반 국민의 관심에서 많이 비껴나 있지만 현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의 학력 격차이다. 이미 넘버스 90호에서 다루었지만 초/중/고교사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데에 무려 79%가 동의했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90호 7쪽).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력 격차의 원인은 온라인 수업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에 몰입하는 수준이나 자세가 거의 전적으로 학생에게 달려 있는데,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화면만 켜둔 채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학력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90호 7쪽).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중고생)의 학력 격차가 더 커졌듯이 교회에서도 청소년의 신앙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깊어진 것 같다'는 비율이 16%, '약해진 것 같다'는 비율이 35%로 양자 사이에 신앙적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7쪽).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 활동 혹은 경험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이들은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신앙 경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3쪽), 예배도 아예 안드리는 경우도 많았다(4쪽). 또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기도(6쪽) 하지만 학교의 온라인 학습이 수업 집중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는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다음주에 다룰 예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 경험을 더 많이, 더 밀도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예배 인원 제한 때문에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배 인원 제한이 풀리는 날에는 모두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부 지도 교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고생들은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도 교역자가 중고생들을 카톡, 줌 등으로 원격 교제를 자주 하거나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1:1 혹은 1:多的 대면 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중고생들이 예배에 참여할 의욕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단계로서는 가정에서의 종교 경험을 넓히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예배라는 형식이 부담스럽다면 주1회 토요일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같이 하고 일주일간의 생활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거나 부모의 신앙 경험 등을 이야기 해주는 것도 신앙적 경험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올해 들어서 가정예배를 목회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전 교인 신앙의식 조사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현황과 효과를 점검했는데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적으로, 가족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요 기독교 유적지(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 대구 중구 근대문화 골목, 광주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를 탐방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이러한 신앙적 경험은 신앙을 가족 문화로 받아들이는 청소년이 자기 결단에 의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더 강해!
2. 우리나라 국민, 희망 은퇴 연령은 65세!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자녀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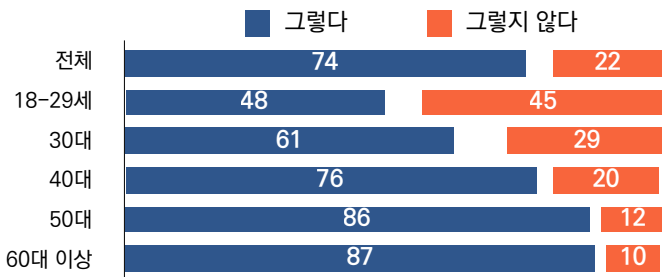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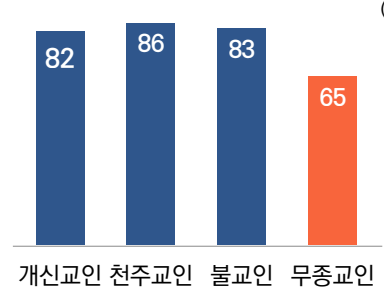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더 강해!

-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74%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 이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20대는 48%, 60대 이상은 87%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62%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해 전체 계층 중에서 가장 부정 인식이 높았다.
- 종교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자신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며, 종교인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본인의 ‘자녀 있어야 한다’ 인식 (%)



[그림] 본인의 ‘자녀 있어야 한다’ 인식(종교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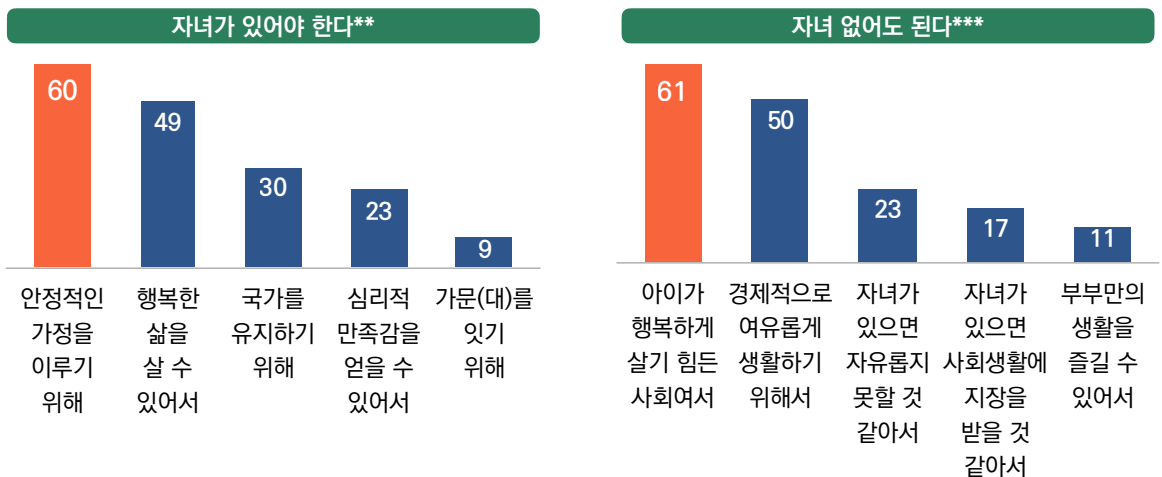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자녀에 대한 인식’, 2021.06.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6.4.-6.7)
 **4점 척도로 ‘그렇다’는 ‘매우+그런 편’, ‘그렇지 않다’는 ‘전혀+그렇지 않은 편’의 수치임
 ***‘모르겠다’ 응답은 표시하지 않았음

● 자녀 있어야 하는 이유, ‘안정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 60%

-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로는 ‘안정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 60%가 가장 높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49% 등 순으로 응답했다.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61%가 가장 높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50%,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23% 등 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녀 있어야 하는 이유 대한 인식(자녀 있어야 한다 vs 없어도 된다, 상위 5위,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자녀에 대한 인식’, 2021.06.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6.4.-6.7)
 **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737명 대상
 ***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216명 대상

● 개신교인, 타종교인/무종교인보다 결혼을 통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 높아!

-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57%가 ‘그렇다’고 응답해 비혼 유자녀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비혼 유자녀 인식을 종교인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 또한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은 62%로 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종교인별로 개신교인에게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전체적으로 개신교인이 타종교인/무종교인에 비해 결혼을 통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그림] 자녀에 대한 인식(‘그렇다’ 응답률)

(%)

자녀에 대한 인식	전체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무종교인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57	46	58	60	61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62	52	54	56	70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	59	66	61	68	53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자녀에 대한 인식', 2021.06.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6.4.-6.7)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어느정도' '그렇다' 비율임

은퇴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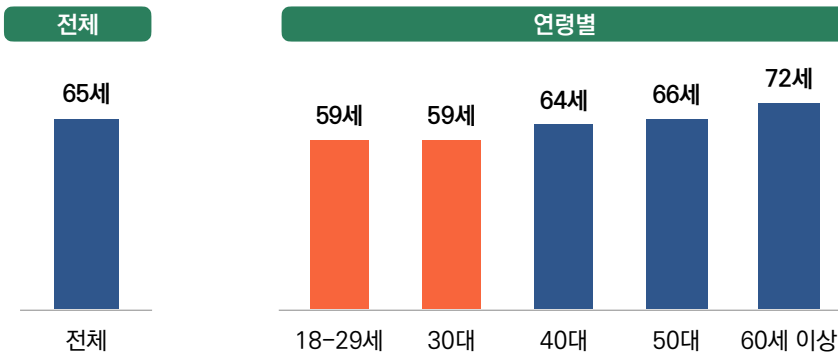
1



우리나라 국민, 희망 은퇴 연령은 65세!

-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은퇴 연령은 평균 65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각각 59세, '40대'는 64세, '50대'는 66세, '60세 이상' 층에서는 72세로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은퇴 연령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은퇴 연령(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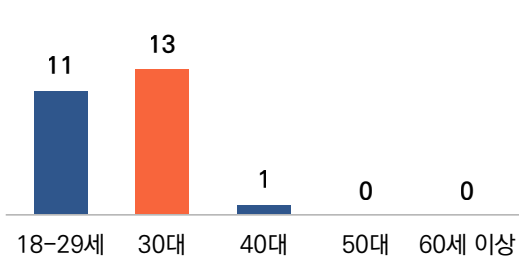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조기은퇴와 직장인의 부수입 창출 활동에 관한 조사', 2021.06.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5.7.-5.10)
 ** 직장인인 경우 희망 은퇴 연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직장인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희망은퇴 연령을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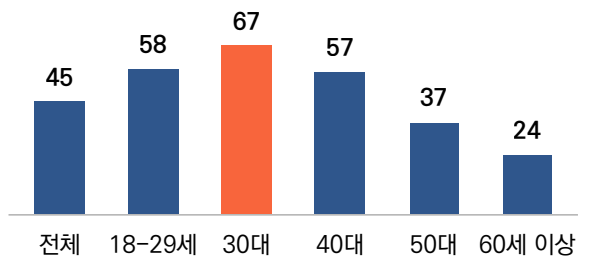
● 30대 연령층, '필요한 자산이 있을 시 조기 은퇴하고 싶다!' 67%

- 장기적 저성장 경제 침체에 유럽 등에서 '파이어족'(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이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희망 은퇴 연령으로 '40대 이전' 응답자가 '20대' 11%, '30대' 14%였고, '40대 이상'에서는 1% 이하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의 조기 은퇴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은퇴에 필요한 경제적 자산이 갖춰졌을 시 조기 은퇴 의사는, '전체 평균' 45%로 2명 중 1명 가까이가 '40대' 또는 그 이전에 은퇴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특히 '30대'는 67%로 가장 높았다.

[그림] 희망 은퇴 나이 40대 이전 응답률 (%)



[그림] 경제적 조건을 갖췄을 시 40대 이전 조기 은퇴하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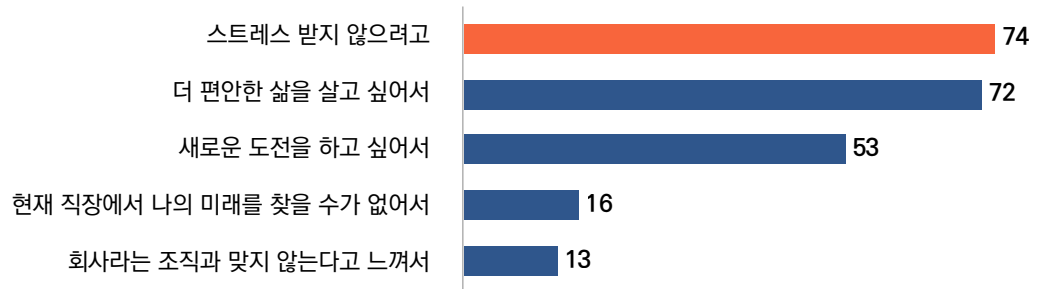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조기은퇴와 직장인의 부수입 창출 활동에 관한 조사', 2021.06.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5.7.-5.10)

● 조기 은퇴하고 싶은 이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 40대 또는 그 이전에 조기 은퇴하고 싶은 이유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74%,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서’ 72% 등이 높았는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조기 은퇴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에 다니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1%, ‘직무 외에도 전반적인 회사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52%, ‘회사에서 주는 일정한 수입에 만족해서’ 42% 등 순으로 응답해 생활의 안정감 측면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조기 은퇴 하고 싶은 이유(조기 은퇴 의향자, 상위 5위, 복수 응답) (%)



[그림] 조기 은퇴 하고 싶지 않은 이유(조기 은퇴 비의향자, 상위 5위, 복수 응답)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조기은퇴와 직장인의 부수입 창출 활동에 관한 조사', 2021.06.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5.7.-5.10)

**충분한 자산이 생기면 40대 또는 그 이전에 은퇴하고 싶다고 응답한 453명 대상

*** 충분한 자산이 생기더라도 40대 또는 그 이전에 은퇴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547명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53호\(2021년 6월 4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4호 \(2021년 6월 4주\)](#)

[“이준석 돌풍의 주역 ‘이대남’ 아냐… 불공정 평가의 불신이 원인”](#)

한국대학신문_2021.06.22

일
반
사
회

[결혼 생활에 불만 큰 남성, 더 빨리 죽는다](#)

조선일보_2021.06.22.

[여성, 우울할수록 '위험한 음주' 빠진다](#)

조선일보_2021.06.20.

[저녁 '흔밥'하는 사람 자살 위험 분석해보니...놀라운 결과](#)

한국경제_2021.06.21.

[치매 환자 10명 중 1명은 중년... 진행도 더 빨라](#)

조선일보_2021.06.22.

[밤에 자주 깨거나 쉽게 잠 못드는 사람, 치매 확률 솟는다](#)

주간조선_2021.06.23.

[월세 사는 청년...평균 9평에 월세 32만원](#)

연합뉴스_2021.06.21.

[황혼 육아에 60대 허리 휜다... 93% “임신·육아로 가정 위기”](#)

조선일보_2021.06.21.

[초등 이하 자녀 둔 여성 5명중 1명 "코로나19 사태후 퇴사 경험"](#)

연합뉴스_2021.06.22.

[MZ세대 10명중 7명 “부-소득 불평등 심각”](#)

동아일보_2021.06.23.

[15년 후엔 4명 중 1명이 비혼... '중년 싱글' 세상이 온다](#)

한국일보_2021.06.19.

[공감능력 좋은 학생일수록 수학·언어 최대 10점 높아](#)

매일경제_2021.06.17.

일
반
사
회

['저녁 있는 삶' 내달 완성... '돈 없는 저녁' 마지막 퍼즐은 남았다](#)

한국일보_2021.06.24.

[“월급만으론 먹고 살기 어려워” 직장인 절반 투잡·스리잡](#)

중앙일보_2021.06.19.

[한국 백만장자 작년 105만명...전세계 5천608만명\(종합\)](#)

연합뉴스_2021.06.23.

["국민연금 이대로면 반란 일어난다" 차기 연금회장의 경고](#)

중앙일보_2021.06.23.

코
로
나
고
독
사

[아무도 울지않은 코로나 고독사...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동아일보_2021.06.14.

[‘한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아버지...’ 아들은 온기 남은 유골함을 안았다](#)

동아일보_2021.06.16.

기
후
환
경

[매년 한국 크기 얼음 녹아... 지구 재앙 막을 시간, 겨우 30년 남았다](#)

조선일보_2021.06.22.

[한반도 30년간, 여름 20일 길어지고 겨울 22일 짧아져](#)

조선일보_2021.06.22.

[낙동강→북한→독도...버려진 페트병 충격적 '1000km 여정'](#)

중앙일보_2021.06.22.

경
제

[자산가격 거품 외환위기 수준 근접...“집값 급락 가능성”](#)

KBS_2021.06.22.

[여성 1인 가사노동가치 연 1천380만원...남성의 2.6배](#)

연합뉴스_2021.06.21.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송으뜸,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구,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용기,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자 | 현재 2주년 기념 후원자 이벤트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벤트 후 취합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